

# 사학연금

Teacher's pension magazine

# 06

Vol. 439

2023.June

# 호국보훈



사학연금이 만드는 매거진

# 사학연금



## 표지이야기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입니다. 우리가 평화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킨 분들 덕분입니다.

사학연금 6월호에서는 진정한 평화와 호국보훈이 무엇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이야기로 꾸몄습니다.

# CONTENTS



발행인 주명현  
발행일 2023년 6월 1일(비매품)  
발행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문의 061)338-0363  
주소 (58326) 전남 나주시 문화로 245(빛가람동)  
대표전화 061)338-0000  
등록번호 나주 라 00010  
등록일자 2006년 1월 12일  
기획·디자인 승일미디어그룹(주)  
연금업무 상담 1588-4110(유료)



## 공감

04

### 명언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며...  
호국보훈의 달, 6월

06

### 만남

호국보훈, 숭고한 마음이 이어지도록  
326호국보훈연구소 최원일 소장

10

### 여행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이 깃든 곳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14

### 짓다

- 장떡과 어머니  
- 불이주느  
- 별 세탁소



## 소통

18

### 건강 식

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 매실 장아찌 고추장 무침

20

### 인생 책

병자호란의 역사이자  
김화전투 중 대승을 이룬 한 장군의 이야기

22

### 지구 인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버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26

### 경제 톨

무섭게 느껴지는 물가상승  
이젠 '짠테크'가 필요하다!

28

### 요즘 말

오구오구 나의 반려식물,  
무럭무럭 자라다오! '식집사'



## 알림

30

### 공단 소식

- 공적연금제도 연금총당부채의 이해  
- 사학연금(TP) 경영 정보

36

### 독자 마당

37

### 제휴 복지



##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송고한 정신을 기리며... 호국보훈의 달, 6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민의례 중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순국선열은 빼앗긴 조국을 되찾고자 독립 투쟁을 벌이다 목숨을 바친 분들을 뜻하고, 호국영령은 국가의 부름으로 전쟁에 나가 적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 희생한 분들을 뜻한다. 현충일, 6·25 전쟁, 6·29 제2연평해전이 모두 있는 6월은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위인들을 추모함과 동시에 국민의 호국·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고자 하는 뜻에서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되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명언을 되새기며 나라를 위해 송고한 희생을 마다하지 않은 위인들을 알아보자.

글 한승희

### 나라 밖에서도 구국 활동을 멈추지 않았던 독립운동가, 이한응 선생

1900년대 초 우리나라를 지배하려 기회를 엿보던 일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권 수호 움직임 중 하나로 ‘구국 외교’가 있었다. 서구 열강에게 일본의 부당함과 우리나라의 상황을 알려 국권 회복을 도모하기 위한 외교활동이었다.

이한응 선생은 15살이 되던 해인 1889년에 관립 육영공원에 입학하여 서구 문명과 영어를 배웠다. 선생이 이곳에서 공부한 2년은 구국 외교의 밑거름이 되어 1901년에 런던 주재 외교관이 될 수 있었다.

“나라가 장차 무너지고, 온 민족이 남의 노예가 되리라.

구차스럽게 산다는 것은 욕만 더할 따름이다. 이 어찌 죽는 것보다 낫겠느냐.”

-이한응 선생의 유서 중





1904년 한일의정서와 제1차 한일협약 체결 후 선생은 그 내용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애쓰고 한국의 독립을 유지하려 외교활동을 계속했다. 그러나 이미 영일동맹이 굳건한 상황에서 선생의 노력은 무시당하기 일쑤였다. 영국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외교관을 철수시킨다는 친일외교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치열하게 구국 외교를 이어나갔던 선생은 1905년 5월 12일 런던 주영공사관에서 자결 순국하여 조국의 독립을 기도했다.

### **독립운동가의 외동딸이자 6·25 전쟁에서 활약했던 호국영웅, 오금손 대위**

오금손 대위는 1931년에 독립운동가 오수암 선생의 외동딸로 태어났지만, 부모님을 일본군에게 잃었다. 독립군이었던 아버지의 유지를 전해 들은 그녀는 어린 나이임에도 그 뜻을 이어가고자 했다. 1944년 광복군에 입대해 기마술과 사격을 배웠고 이듬해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여 무사히 조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 후 간호학교를 졸업하여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었지만 6·25 전쟁이 발발하자 망설임 없이 간호장교로 자원입대했다.

전쟁이 한창이었던 1950년 8월, 포항에서 부상자들을 돌보던 중 북한군의 기습이 있었다. 광복군 시절 사격과 전투 훈련을 철저히 받았던 오금손 대위는 망설이지 않고 총을 들었다. 습격해온 북한군을 사살하여 무사히 병원을 지켜낸 것이다.

*“나라 잃은 설움과 동족상잔의 비극을 직접 겪으면서 내가 설 자리,  
내 나라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휴전 후 전역하여 평범하게 살아가던 오 대위는 우연한 기회로 군부대에서 자신이 겪었던 전쟁에 대해 강연을 하게 되었다. 이를 계기로 오 대위는 전국을 다니며 전쟁의 참상과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알렸다. 2004년 별세하기 전까지 무려 5,000회가 넘는 강연을 이어간 오금손 대위. 어린 시절부터 직접 나라를 위해 뛰었으며 자신의 경험을 담은 강연으로 사람들의 호국 정신을 일깨운 영웅이라 할 수 있다. [▶▶](#)



# 호국보훈, 송고한 마음이 이어지도록 326호국보훈연구소 최원일 소장

글 정미래 사진 한상훈

최원일 소장과의 만남 인터뷰 영상은  
하단 QR코드에서 확인하세요.



326호국보훈연구소 최원일 소장  
해군사관학교 45기  
예비역 해군 대령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 함장

우리는 매일 각자의 일상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서 자리한 평화는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모두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 덕분에 영위되는 것이다. 326호국보훈연구소 최원일 소장 역시 국민의 평화를 지켜온 사람 중 한 명이다. 최 소장을 만나 호국보훈의 의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 소장님 안녕하세요. 먼저 소장님과 326호국보훈연구소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안녕하세요. 1987년 해군사관학교 45기로 입대하여 2021년 2월 말 예비역 해군 대령으로 전역한 최원일입니다. 많은 분께서 잘 알고 계시고, 기억해 주시는 사건인 2010년 3월 26일에 발생한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천안함의 함장이었습니다.

‘326호국보훈연구소’는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예우 등 보훈지원과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 지난 2022년 3월 국가보훈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사단법인입니다. 작년 12월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공익법인 지정기부금단체 인가를 받았고, 많은 분의 관심 속에 모인 후원금으로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326호국보훈연구소는 어떻게 설립하게 되셨나요?

천안함 피격사건 발생 이후 1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던 천안함과 천안함 장병들에 대해 좋지 않은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특히 천안함에서 살아 돌아온 생존 장병 58명은 동료를 두고 혼자 살아남았다는 죄책감에 더해 피격사건 당시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먼저 간 46명의 전우들과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고통받고 있는 58명의 전우들을 지키기 위해 ‘326호국보훈연구소’를 설립하였습니다.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인데요. 소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호국보훈의 의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호국보훈’이란 말 그대로 나라를 지켰던 분들이 합당한 예우와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과연 이분들에 대해 적절한 보훈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전사자의 유족들은 불우이웃 취급을 받고, 전장에서 돌아온 장병들은 세금으로 보상에 줘야 하는 부상장병들이라는 인식이 팽배합니다.

또한 이들의 희생과 사건을 언급하면 북한을 자극하게 되고,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올바른 호국보훈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잘못된 사회적 인식과 분위기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껏 오랜 시간 동안 여러 호국보훈의 영웅들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었다고 생각하는데요. 국민은 잘 모르지만, 꼭 기억해야 할 호국보훈 영웅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특정한 영웅을 선택해 누군가를 먼저 기억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 개개인의 생명을 값으로 매길 수 없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개개인의 무개가 계급과 지위 등에 따라 경중이 구분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이 나라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모든 분이 우리 사회의 영웅이며, 누구도 홀대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서는 연구소를 설립하시기 전 군인으로서 나라를 지키셨는데요. 기억에 남는 일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세요.**

군복을 입고 34년 동안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켰습니다. 높은 파도에 떨미를 참아가며 동-서-남-해에서 출동 임무를 했습니다. 특히 천안함 피격사건 당시 전우들이 자신의 안위는 버리고 서로 살리려 울부짖던 백령도의 그날 밤바다가 가장 기억이 납습니다.

**나라를 위해 많은 희생과 노력을 한 분들이 많을 텐데요. 잘 모른다는 이유로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그들을 기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실제 군 복무 중 다치거나 크나큰 고통으로 인해 육체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정책적으로 개인이 직접 신청하고 소명해야 국가유공자나 보훈보상대상자로 선정 대상에 오를 수








있죠. 상당히 복잡하고 시간이 지나면 신청도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책적으로 가장 먼저 긴급하게 바뀌어야 합니다.

자신이 보훈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경우를 저는 '보훈의 사각지대'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렇기에 '국가가 먼저 나서서 발굴하는 적극 보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된 만큼 이름만 바뀐 행정기관이 아니라 역할에 있어서도 적극성이 더 크게 부여된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덧붙여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수많은 호국영령이 목숨 바쳐 지켜내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유는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예우하고 존중해 주는 문화가 바로 잡히기를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사학연금>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학연금> 구독자들은 대부분 교육의 일선에 계신 분들이라 들었습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처럼 향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자라나는 세대들을 키워내고 바르게 이끌어 가는 선도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이 글을 읽으신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렇기에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을 위해 올바른 호국의 역사와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 바치신 호국영령들에 대하여 제대로 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16명의 천안함 유자녀와 생존 장병 자녀들이 훗날 '경제실패 아파-패잔병 아파'의 자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목숨 바쳐 지켜낸 자랑스러운 아파와 그 자녀'로 기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쟁과 평화에 대한 생각이 깃든 곳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A field of colorful pinwheels on blue poles under a blue sky with clouds. The pinwheels are in various colors including red, yellow, green, blue, and white. The poles are blue and the ground is dry and brown. The sky is bright blue with scattered white clouds.

6.25 전쟁은 우리 민족에게 큰 아픔을 남겼고 그 아픔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밟을 수 없는 북한. 그곳을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이다. 진정한 평화의 의미, 전쟁의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으로 향해보자.

글 한승희



### 전쟁으로 인해 사라져버린 역, 장단역의 증기기관차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는 녹슨 기차 한 대가 서 있다. 힘차게 내달리던 열차는 시간의 흔적으로 스러져 버렸고, 멈춰진 전쟁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는 전쟁으로 사라지게 된 장단역이 있다. 생소하게 들릴지도 모르는 장단역은 경의선의 역 중 하나였다. 전쟁 이후 터만 남은 그곳은 경의선 끝자락 도라산역에서 북서쪽으로 1.7km가량 떨어진 위치에 있다. 장단역 터는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고 단 몇 걸음만 옮기면 군사분계선이다. 그곳을 반세기가 넘는 동안 쓸쓸히 지켜온 증기기관차가 임진각에 전시된 것이다.

임진각 내 시설 중 독개다리 입구 근처에서 볼 수 있는데, 모르고 지나치려고 해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외관에 전쟁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곳곳에 포탄이 관통한 구멍이 가장 먼저 눈에 띈다. 가까이 다가가 차

체를 관찰해보면 무려 1,000개가 넘는 총알 자국이 있다. 6·25 전쟁 당시 물자 수송 임무를 받았던 기관차는 적군 공세로 인해 임무에 실패했고 움직임을 멈추었다. 장단역은 터만 남긴 채 사라졌고, 기관차는 녹슬고 풍화되어 달릴 수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줘야 한다는, 새로운 임무를 맡은 게 아닐까.

### 임진각을 평화와 희망의 상징으로 발돋움하게 한 평화누리공원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의 이름은 누구나 들어 보았겠지만, 정확히 어떤 장소인지 쉽게 떠오르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바람개비 언덕'이라고 말한다면 그곳의 풍경을 그려낼 수 있다. 평화누리공원은 임진각이 지어진 초기에는 없던 곳이다. 본래 임진역이 위치했던 자리에 들어선 이 공원은 2005년 세계평화축전을 계기로 조성되었다.

임진각은 북한 실향민들을 위해 세워진 곳으로 오랫동안 전쟁의 아픔과 분단국가의 상징으로 여겨졌다. 매년 실향민들이 고향을 향해 제사를 지내는 곳이며, 군사분계선 인근이라 전쟁의 참상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곳. 임진각이 가지고 있던 이미지를 평화누리공원으로 인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평화누리공원의 진입로를 따라 걷다 보면 생명촛불 파빌리온, 통일기원 돌무지, 캔들숍을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부터 많은 사람이 평화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생명촛불 파빌리온이나 통일기원 돌무지의 장식들이 바로 방문객들이 기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곳의 촛불이나 돌판은 우리나라의 통일이 아니라 어린이들을 위한 마음으로 설치됐다.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이곳에 촛불과 돌판을 놓을 수 있으며 기부금은 유니세프를 통해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의 어린이들에게 쓰인다. 단순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뜻이 담긴 곳이라 의미가 남다르다.

생명촛불 파빌리온이 끼고 있는 길을 따라 걸으면 음악의 언덕과 바람의 언덕에 도착할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한 바람개비 언덕이 바로 이곳이다. 여기에서는 형형색색의 바람개비뿐만 아니라 거인 조형물 4개를 함께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평화누리공원의 랜드마크인 '통일부르기' 조각상이다. 통일에 대한 염원을 담아 조형된 것으로, 이들은 모두 북한을 바라보고 있으며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커진다. 이외에도 다양한 조형물과 공연 및 전시가 사람들의 발길을 불러 모은다.

### 멀지만 멀지 않은 곳, 북한을 더 가까이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는 민간인 통제 구역을 드나들 수 있는 케이블카가 있다. 파주 임진각 평화 곤돌라는 2020년에 정식 개장하여 임진각에서 민간인 출입 통제 구역까지 운행 중이다. 출발지와 도착지를 오가며 임진강, 자유의 다리, 임진강 철교 등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어 많은 사람이 이용한다. 핫한 케이블카라면 필수라고 할 수 있는 투명 바닥 캐빈도 운영 중이다. 다만 민간인 통제 구역을 오가고 있으니 탑승을 원한다면 신분증



은 꼭 챙겨야 한다.

임진각 탑승장에서 출발해서 DMZ 탑승장에 도착하면 평화정, 평화등대, 월경방지표지판, 도보다리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중 도보다리는 2018년 4월 27일 남북공동성명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산책했던 곳을 재현해 둔 것이라 의미가 깊다.

월경방지표지판은 1950년대부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세월의 흔적이 가득 묻어있다. 이 표지판은 국가안보를 위해 비행 금지 구역임을 알리는 용도다. DMZ 탑승장 인근은 철책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철책 바깥으로 나가면 미확인 지뢰지대임이 명시되어 있다. 이곳은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이며 우리나라가 현재 휴전 국가임을 상기시켜준다.

커다란 변화 없이 계속되는 일상을 살다 보면 전쟁이 멀게 느껴질 수 있다. 그럴수록 북한과의 관계, 평화 통일, 국가안보는 나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게 된다. 임진각에 방문하여 우리 땅에 고스란히 남아있는 전쟁의 흔적을 직접 마주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전쟁과 통일이 멀지 않은 곳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

####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각로148-33  
**문의** 031-953-4744  
**홈페이지** <https://www.dmzgondola.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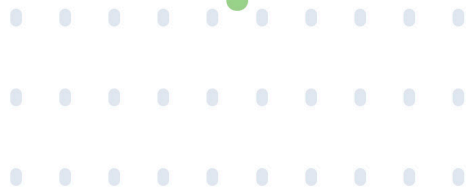
## 장떡과 어머니

글 이경수(양곡고등학교 퇴임)

장떡이었다. 된장, 고추장, 부추 등 속 버무려 오물조물 동그랗게 만든 장떡을 나는 좋아했다. 짭짤한 장떡만 있으면 밥을 맛나게 먹었다. 일 년 전 이맘때, 어머니는 자식 놈 먹이려고 온종일 장떡을 만들어 채반에 널어놓으셨다. 적당히 말려 냉동실에 넣어두면 꽤 오래도록 나의 최고 반찬이 된다.

다음날이었던 것 같다. 우당탕, 소리가 컸다. 불길한 느낌이 확 일었다. 뛰쳐나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해서 119의 도움을 받아 병원으로 모셨다. 작은 병원, 큰 병원 옮겨가며 입원, 허리 수술, 입원, 몇 개월 만에 결국은 요양원으로 가셨다.

집안에서도 보행기에 의존해 겨우겨우 걷는 양반이 장떡 채반을 옮기다가 넘어지신 게 발단이었다. 아들놈 불러서 채반 옮기라고 하면 될 것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아서, 당신이 손수 하시려다가 사고를 당했다.





아흔이 되어가는 어머니가 여전히 입원 중이던 어느 날, 육십 넘은 아들은 냉장고를 열었다. 집사람이 출근한 사이에 장떡을 버리려는 것이다. 식탁에 장떡 통을 내놓고 가만히 보니 장떡이 된 죄인이 싶었다. 이것 때문에 어머니가 낙상 사고를 당하기는 했지만, 어머니의 정성과 사랑이 담긴 음식인데 버려서야 되겠나 싶었다. 도로 냉동실에 넣었다.

집사람 눈치를 보며 장떡 몇 조각 구워 밥상에 올렸다. 한입 베어 물었는데 넘길 수가 없었다. 먹지 못했다. 우당탕 소리가 또 들리는 것 같았다. 이튿날 나는 장떡을 모두 내다 버렸다. 집사람은 묻지 않았다. 아무 말하지 않았다. 나는 이제 장떡을 영영 먹지 못할 것 같다.

요양원 생활 초반, 정신만 온전한 어머니는 “내 신세가 왜 이리 됐냐” 한탄만 하셨다. “차라리 죽을 병 걸린 게 낫지” 이런 소리 들을 때마다 아들은 손바닥으로 탕탕 제 가슴만 쳤다. 어머니의 깊은 한숨 소리에 아들은 더 깊은 한숨을 삼켰다. 수개월 지나면서 어머니는 조금씩 새 환경에 적응하고 있다. ‘적응’이라 쓰지만, 사실은 ‘체념’이리라. 집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며칠 전 면회 갔을 때 어머니를 모시고 나온 복지사 선생님이 내게 검정 비닐봉지를 주셨다. 어머니가 그러셨다. “ 쌤비다. 가져가서 먹어. 너 이거 좋아하잖냐.” 어머니는 전병 과자를 ‘ 쌤베’도 아니고 ‘ 쌤비’라고 부른다. 하여 나도 그렇게 부른다. 그런데 이게 무슨 상황인가.

마음 고운 요양원 원장님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는 어머니에게 전병 과자 한 봉지를 주셨다. 어머니는 부채 모양 과자를 맛나게 드시다가, ‘우리 아들도 좋아하는데’ 생각에 이르렀다. 그 순간 어머니는 과자 먹는 걸 중단하고 그걸 담아 두게 했다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주시면서 어머니는 살짝 웃었다. 요양원 오시고 처음 보는 미소였다. 어머니 미소에 아들은 웃음으로 화답하지 못했다. 천장 올려다보며 눈만 껌뻍하였다.

어머니가 집에 계실 때 좋아하시는 ‘ 쌤비’를 종종 사다 드렸었다. “나 혼자 먹자고 이걸 돈 주고 사 오냐”, “아냐, 엄마, 나도 좋아해요. 맛있잖아.” 그러면 어머니가 몇 개 꺼내 주시곤 했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나는 ‘ 쌤비’를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이 ‘ 쌤비’를 아주 좋아한다고 믿으셨다.


소파에 멍하니 앉았다가 어머니에게 받아온 과자 봉지를 열었다. 한 조각 입에 넣는다. 바사삭 깨지며 고소한 맛이 피어오른다. 눈물이 예고도 없이 주룩 흐른다. 닦지 않는다. 입안의 과자가 장떡도 아닌 것이 짝조름한 것 같다. 먹는다. 요양원에서까지 아들 먹을 것 챙겨주시며 호못해하던 어머니를 떠올리며 우걱우걱, 끼이끼이 먹는다.

어머니, 어머니, 엄마! 



## 불이不二

글 김옥진(경북여자상업고등학교 퇴임)

맨발로 숲길을 걷는다  
 더럽게 맨발로 와서  
 온 숲을 오염시키느냐고  
 새들은 재잘재잘  
 돌멩이들도 구시렁구시렁 판지를 건다  
 한 발 한 발 땀 때마다  
 어떤 흙은 새끼발가락 새로 끼어들어  
 이 발가락 새끼 간지러워 미치겠다며  
 깔깔 웃어재끼고  
 또 어떤 흙은 발바닥에 살살 달라붙어  
 찻먹이처럼 칭얼거린다  
 살과 살 사이  
 끼어들고 달라붙는 건  
 너나 나나 마찬가지로  
 나는 흙의 발가락이 되고  
 흙은 나의 발바닥이 되는 순간  
 나의 발은 순한 흙발이 된다  
 흙이 숲길을 걷는다  
 맨발로  
 걸으니, 그러나  
 심사가 둘이 아님을, 뼈저리게  
 발가락은 오므라들었고  
 발바닥은 퍼졌다  
 나도 모르게  
 외진 숲길 한 모퉁이서  
 맨발과 맨흙이 조용히 만나  
 둘이 하나가 된다  
 숲이 된다 



# 별 세탁소

글 김명원(대전대학교 재직)

그 집

별나게 부부 간 금실 좋고  
별 볼 일 없이 다림질만 풀풀 하는  
별 세탁소

남편과 아내

얼마나 닮았는지  
서글 눈매며 도톰 입이며  
썰매를 타듯 허공에서 미끄러지는 손길의 삼박자까지

다리미에 데일까 엉덩이 유난히 흔들며

바람이 신나게 뽀박질할 때마다  
호호, 작은 물결 무늬 이루는  
저 어여쁜 연못 좀 보아

하얀 백조 두 마리

삼십 년이나 말없이도  
수화手話로만 우리 옷을 말끔히 펴놓는  
위아래 왼쪽 오른쪽 멍들고 뒤틀린 날들의 분노도  
깨끗이, 구김살 없애는

마술의 잔잔한 수면 위로  
부지런히 오후가 헤엄쳐 가는  
저 고요함 좀 보아

증기다리미가 어둠 밀어 올리며  
맑은 구름 한 점씩 만들 때마다  
누구도 못 다릴 영롱한 것들이  
딸 새롬이의 눈에 반짝

비쳐드네, 별들이야





여름의 싱그러움이 가득!

매실 장아찌 고추장 무침

글 한승희

예로부터 매실은

‘음식, 피, 물의 독, 즉 3독을 없앤다’  
라는 말이 내려올 만큼 몸에 좋은  
과실로 여겨져 왔다.

매실에는 무기질, 비타민, 유기산 등  
영양이 아주 풍부하여 피로를 풀어  
주고, 위장의 작용을 활발히 해  
소화를 돕고 식욕을 돋우기도 한다.  
6월 중순부터 7월 사이에 영양이  
가장 많은 매실로 장아찌를 담가  
여름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함께할  
밥도둑 반찬을 준비해보자.



#### 주 재료

매실 60g, 설탕 60g, 고추장 30g,  
참기름 0.5g, 통깨 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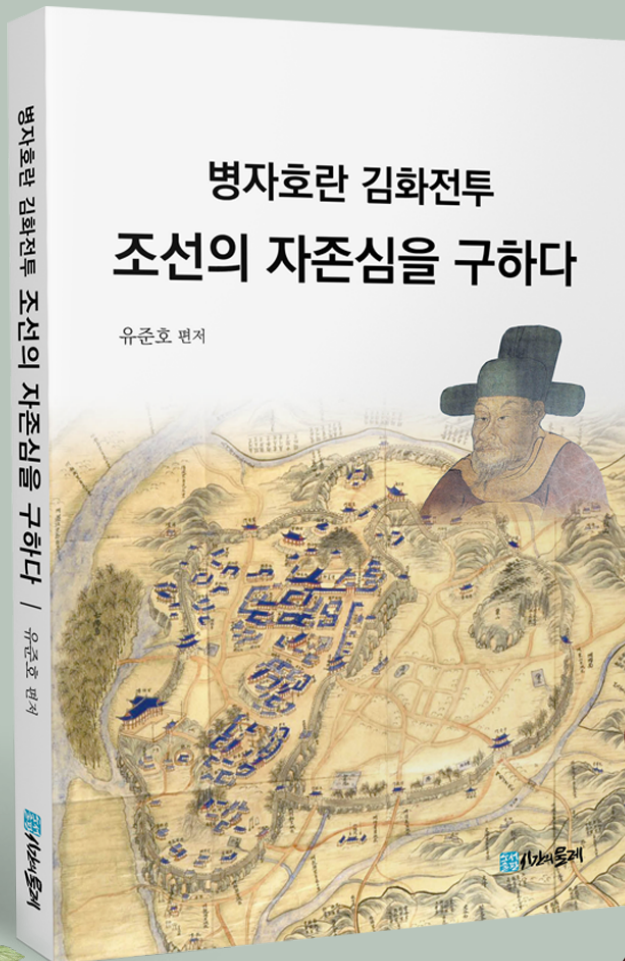
#### 만드는 법

1. 매실은 꼭지를 떼고 씻어 채반에 건져 물기를 빼준다.
2. 매실을 2등분하여 씨와 과육을 분리한 후 씨는 버린다.
3. 용기에 매실 과육과 설탕을 쪼켜이 쌓는다. 맨 위에 매실이 보  
이지 않도록 설탕을 충분히 덮는다.
4. 서늘한 곳에 15일 정도 숙성시킨다.
5. 숙성시킨 매실과 매실액을 분리해준다. 매실은 하루 정도 채반  
에 담아 물기를 빼준다.
6. 물기를 뺀 매실에 고추장, 참기름, 통깨를 넣어 버무려 준다. [tip](#)

# 병자호란의 역사이자 김화전투 중 대승을 이룬 한 장군의 이야기

책 <병자호란 김화전투 조선의 자존심을 구하다>

제공 저자 유준호



\*본 도서는 유준호 저자에게 협찬 받은 도서로 이벤트를 통해 5분께 증정합니다.



## 바닥으로 떨어진 백성들의 마음을 토닥여준 유림 장군의 김화전투 대승



이 책은 작은 병자호란사(丙子胡亂史)이자, 병자호란 중에 김화전투(金化戰鬪)에서 청나라 철기병에 대승을 거둔 한 장군의 이야기다.

병자년 12월 초에 청의 수도 성경을 출성한 청 태종 홍타이지는 철기를 앞세워 의주, 광산, 정주를 지나 무인지경으로 휩쓸며 안주성에 이른다.

이때 안주성을 지키던 이가 평안병사(平安兵使) 유림(柳琳)이다.

한편 남한산성에 갇힌 인조(仁祖)는 근왕(勤王)을 하달하고,

외로운 임금을 풀고자 조선 8도의 근왕군은 산성으로

몰려들었으나 대소 10회의 전투에서 청의 철기 앞에 모조리 무너지고 괴멸되었다.

그것으로 끝이었다. 청(靑)은 우리 스스로가 오랑캐라 부르던 무리들이다.

이런 오랑캐 앞에 우리 임금이 맨땅에 무릎을 꿇고 삼배구고두를 올리며 항복을 했으니


조선의 백성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치욕과 슬픔 그리고 분노를 느꼈다.

호란의 참화를 겪은 우리 민족의 정신적 트라우마는 치유될 수 있을 것인가?

저자는 병자호란의 와중에서 홀로 안주성을 지키던 평안병사 유림 장군이 5천의 안주병을

이끌고 근왕의 길에 올라 김화에 이르러 조총과 화약무기로 청의 철기군을 격파하고

대승을 거둔 김화전투에서 우리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시퍼런 자존심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지은이 유준호

출판사 시간의물레

발행일 2022년 11월 10일

정가 18,000원

ISBN 97889651140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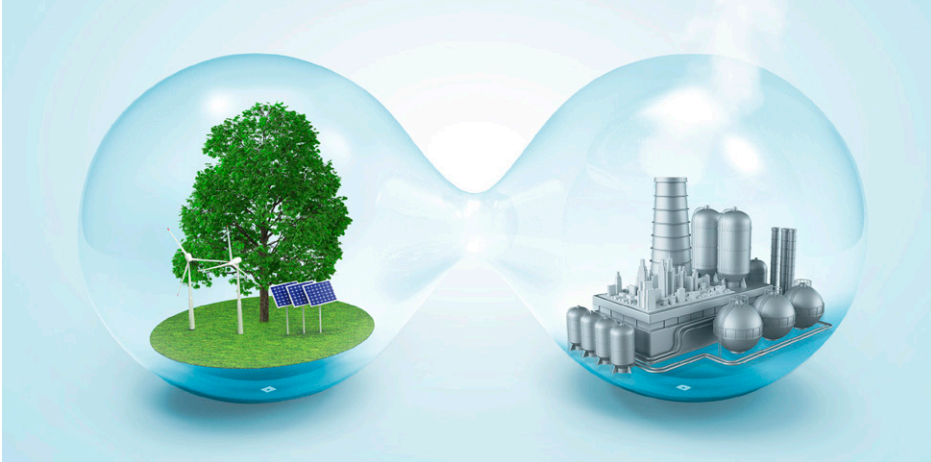


##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버는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탄소중립이 연일 화제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이들에게 탄소중립의 재미를 일깨워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겨났다. 바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버는 1석 2조의 제도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에 대해 알아보자.

글 정미래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이란**

최근 환경보호는 많은 이의 관심을 받는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나 환경보호를 위해 탄소배출을 줄여야 한다는 것을 안다. 하지만 막상 시작하려 하면 망설여진다. 나 하나 실천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작은 나비의 날갯짓으로 커다란 태풍이 생겨나듯이 우리의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은 일반 국민에게 탄소중립 생활 실천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이용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다. 친환경 활동을 실천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만 하면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참여방법**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항목

탄소중립은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필요 없는 자원은 사용을 자제하고, 일회용품은 사용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에 방문해 식사한 뒤 카드를 사용했다면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종이 자원을 아낄 수 있다. 또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기 위해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에게는 필요 없지만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건이라면 재사용이 가능하도록 배출하자. 여행이나 업무 때문에 차량이 필요하다면 무공해차를 대여하자. 이런 작은 활동으로도 우리는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다.

#### 탄소중립실천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항목

##### 01 전자영수증

종이영수증 대신 전자영수증 발급

##### 02 텀블러·다회용컵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 대신 다회용컵 이용

##### 03 일회용컵

일회용컵보증금 참여 매장에서 일회용컵 반납

##### 04 리필스테이션

세제, 화장품은 빈 용기를 가져가서 매장에서 리필

##### 05 다회용기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여 배달음식 주문

##### 06 무공해차

차량공유업체 앱에서 무공해차 대여

##### 07 친환경제품

친환경제품 판매 매장에서 친환경제품 구매

##### 08 고품질 재활용품

지자체 수거점에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 09 폐휴대폰

사용하지 않는 폐휴대폰 기부·재활용 업체에 반납

##### 10 미래세대 실천행동

기후행동 1.5°C에 가입 후 활동에 따라 포인트 적립



**탄소중립 실천으로 지구도 지키고 돈도 벌자**

탄소중립실천포인트는 생활 속에서 손쉽게 다양한 방법으로 적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1인당 최대 7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현금 혹은 참여기업과 카드사 포인트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녹색생활 실천 활동에 따른 인센티브**

| 대상          | 단가           | 상한액 / 년 |
|-------------|--------------|---------|
| 실천 다짐금      | 5,000원/최초·차등 | 70,000원 |
| 전자영수증 발급    | 100원 / 회     |         |
|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 300원 / 회     |         |
| 일회용컵 반환     | 200원 / 회     |         |
| 리필스테이션 이용   | 2,000원 / 회   |         |
| 다회용기 이용     | 1,000원 / 회   |         |
| 무공해차 대여     | 100원 / 1km   |         |
| 친환경제품 구매    | 1,000원 / 회   |         |
|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 100원 / 1kg   |         |
| 폐휴대폰 반납     | 1,000원 / 회   |         |
| 미래세대 실천행동   | 상장 및 상금      |         |

※ 인센티브 세부내용은 대상별 참여실적, 예산집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적다면 적고 크다면 큰 금액이지만 돈보다 값진 것은 우리 손으로 탄소를 줄이고 지구 환경에 보탬이 되었다는 뿌듯함이 아닐까. 우리가 나아가는 터전, 푸른 별 지구를 위해 오늘도 작지만 보람된 움직임으로 탄소중립실천포인트를 쌓아보자. [▶](#)



출처 :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



# 무섭게 느껴지는 물가상승 이젠 '짤테크'가 필요하다!

## 장보기가 겁난다




치솟은 물건 값을 보니 겁이 날 정도다.  
일단 정말 필요한 것만 사고  
급하지 않은 것은 나중에 사는  
'짤테크'를 실천해볼까?



**짤테크 = 짜다 + 재테크**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 낭비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인 지출을 하자!

"여름옷은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으니까,  
바로 사용해야 하는  
샴푸 먼저 구매해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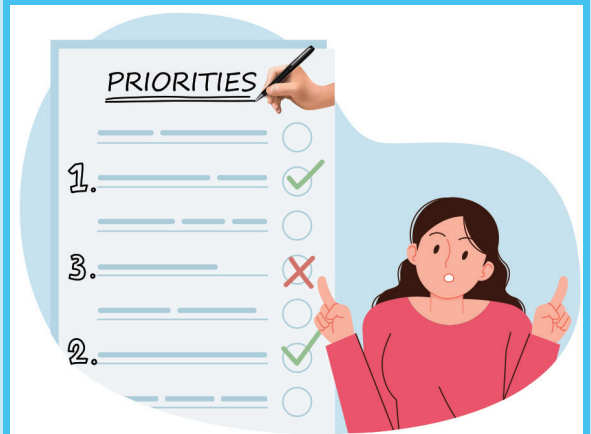
올해 들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라는 말이 피부로 느껴진다.  
치킨 한 마리를 사먹으려고 해도 기존에 반해 많이 오른 가격에 한 번 더 고민하게 되기 때문.  
물가상승으로 빡빡한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짠테크’이다. 

글 김지희

짠테크, 바로 이렇게!



“작은 소비도 아껴야겠다! 텀블러도 챙겨가서 할인받아야지~”



“짠테크의 기본, 바로 필요한 물건의 구매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짠테크와 비슷한 말과 반대말



**노머니족 = No(없다) + Money(돈)**

“돈은 아끼는 거야. 소비를 절대 하지 않아야 해.”



**올로 = 올로(YOLO, You Only Live Once)**

“한 번뿐인 인생! 나의 행복을 위해 소비하며 사는 거야!”

# 오구오구 나의 반려식물, 무럭무럭 자라다오! '식집사'



얼마 전, 급부상한 취미가 있다. 바로 '반려식물' 돌보기다.  
그리고 이 식물을 가족같이 돌보며 애정을 쏟는 사람들을 '식집사'라고 부른다.  
정서적으로 의지하고 기르는 대상이 동물에 이어 식물까지 확대된 것이다.  
식집사는 특히 젊은 층에서 인기가 많다.  
반려식물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하는 '식집사'에 대해 알아보자! 📺

글 김지희



## #식집사



현진아, 이 사진 좀 봐봐. 우리 집 강아지 정말 귀엽지!!



진짜 귀여워~ 나도 요즘 뭐 키우고 있는데.



뭔데, 뭔데? 나도 보여줘!



짜잔~ 요즘 내가 키우고 있는 몬스테라야! 너는 '집사', 나는 '식집사'!



식집사가 뭐야?

반려식물을 애지중지 키우는 사람들을 집사에 빗대어 '식집사'라고 해.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



요즘 인기 있는 식물은 사고팔며 재테크도 하던데.  
너도 한번 해봐! 잘 할 수 있을 거 같아. :-)

그럼 나도 한번 도전~!



# 공적연금제도 연금충당부채의 이해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충당부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공단에서는 고객 선생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연금충당부채란 무엇인지, 어떻게 산출하는지 등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합니다. 보험계리를 전공한 필자의 시각에서 작성하였기에 일부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견을 필자 이메일(hcju33@tp.or.kr)로 보내주시면 필자가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 연금충당부채는 정해진 기간 내에 상환해야 하는 채무와는 다릅니다

연금충당부채는 회계상 '부채'로 인식되지만 '빌린 돈' 또는 '갚아야 할 돈'을 의미하는 채무와는 그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연금충당부채란 향후 지급해야 할 급여 중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현재가치로 나타낸 것으로 일종의 '준비금 추정액'입니다. 준비금 추정액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하에서는 생명보험회사의 부채를 예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보험회사는 고객으로부터 보험료를 받는 대신 피보험자의 사망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여기서 보험회사와 고객 간의 거래는 일상생활에서 돈을 지불하고 물건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거래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료를 받았지만 그 대가로 아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는 향후 보험금 지급상황을 대비하여 수취한 보험료를 적립금의 형태로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은행이 고객의 인출사태를 대비하여 지불준비금을 마

련해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입니다. 보험에서는 이를 책임준비금, 연금에서는 보통 연금충당부채라고 하며 회계상 부채로 구분합니다. 분명 빌린 돈, 즉 채무는 아니지만 향후의 지급상황을 대비한 준비금이라는 점에서 앞서 연금충당부채를 일종의 '준비금' 추정액이라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금충당부채가 추정액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생명보험의 예로 돌아가 보면, 보험회사의 입장에서는 보험금이 계약기간 내 지급될지 아닐지 알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피보험자가 계약기간 내 사망할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령 종신 생명보험이라 할지라도(사람은 누구나 사망하므로 언젠가는 보험금이 지급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보험금을 언제 지급해야 하는지는, 즉 정확한 사망시점은 미리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존시까지 연금을 지급하는 경우 역시 언제까지 연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준비금, 즉 연금충당부채를 정확히 계산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정 방법(이 방법에 대해서는 이후 보다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에 따라 이를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연금충당부채는 회계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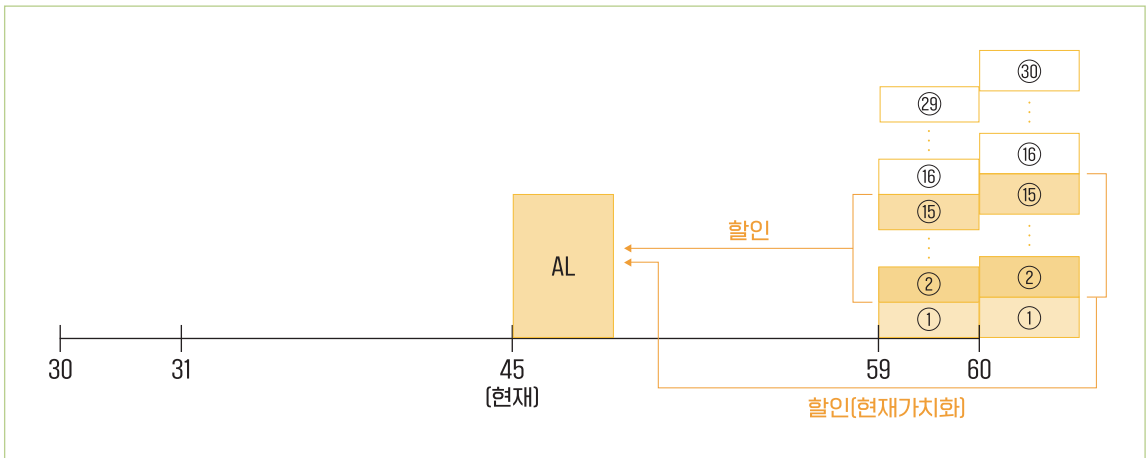
부채로 구분되지만 빌린 돈, 갚아야 할 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준비금으로서 미래 지급해야 할 것으로 생각 되는 금액에 대한 일종의 추정액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연금총당부채는 추정액이므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그 액수가 상당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연금총당부채를 어떻게 ‘추정’하는지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총당부채를 계산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현재에는 예측급여적립방식 (Projected Unit Credit, 이하 PUC로 약칭)이라는 방법이 주로 사용됩니다.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의 연금총당부채를 산정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립학교에서 직원으로 30세에 입직하여 현재까지 15년 재직 중인 홍길동 선생님을 예로 연금총당부채의 산정과정을 아주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홍길동 선생님이 퇴직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연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해야 합니다. 먼저 홍 선생님께서 60세까지 재직한 후 퇴직하신다고 가정하고 연금액을 산정합니다(밑의 그림에서 가장 오른쪽의 ①~③①으로 구성된 부분). 계산된 연금액은 홍 선생님의 총 재직기간 30년에 대한 연금액입니다. 연금총당부채

산정 시에는 이 연금액 중 현재까지의 재직기간 15년에 해당하는 부분(그림에서 주황색 음영처리된 ①~①⑤ 부분)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30년 재직 후 정년 60세 퇴직 시의 연금액이 200만 원이고 이 중 현재까지의 재직기간 15년에 해당하는 부분이 100만 원이며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할인율이 3%라고 하면 64.2만 원(=100만 원 / 1.03<sup>15</sup>)이 계산됩니다.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정년 1년 전인 59세에 퇴직할 때의 연금액(예를 들어 190만 원)을 계산하고 이 중 15년에 해당하는 부분(예를 들어 92만 원)을 따로 떼어낸 후 이를 다시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92만 원을 14년 할인하기 위해 1.03<sup>14</sup>으로 나누면 60.8만 원이 계산됩니다). 홍 선생님의 미래 각 퇴직시점에서 연금액을 추정하고(왜냐하면 언제 퇴직하실지 현재로서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중 현재까지의 재직기간 15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현재가치로 전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요. 이처럼 미래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급여 중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의 현재가치를 구하여 연금총당부채를 계산하는 방식을 PUC라고 합니다. 이미 재직한 부분만 고려하는 PUC는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때문에 회계상 부채인 연금총당부채를 산정하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입니다.



너무 복잡하다고요? 실제로는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연금액 그리고 연금액 중 현재까지의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을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장 어려운 부분은 흥 선생님이 언제 퇴직하실지, 언제까지 연금을 수급하실지 알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렇기에 보험계리 또는 연금계리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이용, '확률'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여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홍길동 선생님이 30년 후 퇴직하실 확률, 29년 후 퇴직하실 확률을 앞서 계산해 놓았던 현재가치에 각각 곱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흥 선생님께서 생존해서 연금을 받게 될 확률인 생존율 등도 필요합니다. 더불어 현재가치로 전환하기 위한 할인율을 결정해야만 합니다. 연금총당부채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10가지가 넘는 가정들(이를 보험계리 분야에서는 기초율이라고 합니다)이 필요하며, 이 가정 중 어느 한 가지만 바뀌어도 연금총당부채는 변하게 됩니다.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할인율인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공무원 연금총당부채 본질 파헤치기'에 따르면 할인율이 0.5%포인트 하락할 경우 공무원 연금총당부채는 약 110조 원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앞서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 연금총당부채 산정과정을 간단히 설명 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연금총당부채는 많은 가정을 바탕으로 계산되는 추정치로서 계산과정에서 요구되는 가정이 변할 때, 특히 할인율이 변할 때 연금총당부채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연금총당부채의 규모뿐만 아니라 계산되는데 사용되는 가정들, 특히 할인율 등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연금총당부채가 갑자기 너무 늘어 국가 재정에 문제 있다'거나 '국가 부채를 줄이기 위해 일부러 축소했다는 의심' 등 연금총당부채와 관련한 불필요한 오해와 근심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민간 보험회사와 공적연금제도의 차이를 알아야 연금총당부채가 지니는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지금까지 연금총당부채란 언제, 어느 정도의 금액이,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지급될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최선의 방법(best estimate)을 통해 현재가치로 추정한 금액이라 설명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불확실한 금액, 어떤 가정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도 있는 연금총당부채를 왜 굳이 어렵사리 추정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를 알기 위해서는 애초 '책임준비금'과 '연금총당부채'라는 것이 민간 보험회사의 지불능력과 관련한 개념으로 시작하였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민간 보험·연금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보험금 또는 연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납부한 보험료를 떼이는 경우이지요. 민간 보험회사는 언제나 재무상황의 악화로 약정된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수 있고 심한 경우 파산하여 회사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 회사의 위험 때문에 금융당국은 피보험자의 보호를 위해 책임준비금 혹은 연금총당부채를 계산하여 그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반드시 적립해 둘 것을 법률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객이 보험 계약을 해약할 때 역시 책임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환불하여 줍니다. 정리하면 책임준비금 및 연금총당부채는 보험회사가 약정되어 있는 금액을 고객에게 지급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는 한편 해약 시 납부한 보험료를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즉, 고객 보호를 위하여) 비록 불완전한 방식으로나마 보험회사가 부채의 형식으로 적립해 두어야 하는 적정 수준의 적립금을 추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총당부채 역시 이러한 민간 보험회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닐까요? 공적연금제도와 민간 보험회사 간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공적연금제




도는 가입자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민간 당사자 간의 계약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라 모두가 가입해야 하는 '사회보장제도'로서 민간 보험회사와 같이 국가가 파산하거나 연금을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공적연금의 연금총당부채 규모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보일 수도 있으나, 연금총당부채가 지금 당장 가입자에게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 아니며 향후 각 공적연금 제도의 제도개선과 정부의 재정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둘째, 민간 보험에서는 기본적으로 수지상등(收支相等)의 원칙에 의해 보험료가 결정되는 반면 공적연금제도에서는 그러하지 않다는 점도 큰 차이 중의 하나입니다. 민간 보험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으로서, 예상되는 보험금 지출과 운영비 그리고 이윤을 감안하여 보험료를 결정합니다. 금융당국에 의한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피보험자의 위험에 기반을 두어 자율적으로 보험료를 책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만큼 책임준비금 또는 연금총당부채에 해당하는 준비금을 적립하여 지불능력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반면 공적연금제도는 사회보장제도로서 이러한 수지상등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각 가입자가 처해 있는 위험정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민간 보험회사처럼 보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재정균형을 위한 보험료율이 감안되기는 하지만 모든 대상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만큼 제도 도입 초반에는 강제 가입에 대한 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보다 '후하게'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몇 차례의 개혁을 거친 현재에도 소위 '넌 돈 대비 받는 돈'이라고 일컬어지는 수익비는 1보다 더 큰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간 보험회사처럼 연금총당부채를 완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적립기금을 확보한다는 것이 사실상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공적연금제도도 민간 보험회사처럼 이윤 확보를 위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명확한 예측을 바탕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대의 선세대 부양이라는 '사회적 연대원리'에 기초한 사회보장제도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요. 민간 보험과 공적연금제도 간 이러한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지 않고 민간 보험의 연금총당부채 개념을 공적연금제도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오해 또는 과도한 걱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치 근시일 내에 국가가 부도나거나 국가재정이 파탄날 것 같은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물론 공적연금제도의 이러한 차이가 사학연금을 비롯한 우리나라 공적연금 재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분명 연금총당부채와 미적립부채(연금총당부채에서 적립기금을 차감한 수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은 공적연금의 재정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신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공적연금에 대한 장기 재정전망을 통해 언제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기금이 소진될 것인지, 그 이후 재정적자 규모는 어떻게 되고 정부 보전금이 얼마나 필요할지를 살펴보고 그 대책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재정상황을 진단하는 또 다른 하나의 수단으로서 공적연금제도의 연금총당부채와 미적립부채를 바라보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사학연금(TP) 경영 정보

2023년 3월말 기준

## 1. 대상 기관 및 교직원, 연금수급자 현황

### · 학교기관 수 현황

(단위 : 기관 수)

| 구 분             | 학교기관 수 |       |
|-----------------|--------|-------|
| 2023년 3월 31일 기준 | 유 치 원  | 3,112 |
|                 | 초·중·고  | 1,717 |
|                 | 대학교 이상 | 738   |
|                 | 소 계    | 5,567 |

### · 교직원 현황

(단위 : 명)

| 구 분             | 교직원    |         |
|-----------------|--------|---------|
| 2023년 3월 31일 기준 | 유 치 원  | 33,239  |
|                 | 초·중·고  | 55,353  |
|                 | 대학교 이상 | 243,590 |
|                 | 소 계    | 332,182 |

### · 연금수급자 : 111,316명(평균연금월액 295만 원)

(단위 : 명)

| 구 분             | 연금수급자 수       |         |
|-----------------|---------------|---------|
| 2023년 3월 31일 기준 | 퇴직연금          | 97,989  |
|                 | 유족연금          | 10,730  |
|                 | 장해, 연계, 분할 연금 | 2,597   |
|                 | 소 계           | 111,316 |

## 2. 자산 운용 현황

(단위 : 억 원, %)

| 구 분             | 금 액    | 구 성 비   |      |
|-----------------|--------|---------|------|
| 2023년 3월 31일 기준 | 유가증권   | 214,070 | 87.5 |
|                 | 대 여    | 22,945  | 9.4  |
|                 | 유형자산   | 4,026   | 1.6  |
|                 | 유동자산 등 | 3,610   | 1.5  |
|                 | 소 계    | 244,651 | 100  |

## 3. 금융자산 운용 현황

(단위 : 억 원, %)

| 구 분             | 금 액  | 수 익 률   |       |
|-----------------|------|---------|-------|
| 2023년 3월 31일 기준 | 채 권  | 77,471  | 4.19  |
|                 | 주 식  | 91,657  | 10.01 |
|                 | 대체투자 | 55,391  | 3.02  |
|                 | 현금성  | 2,032   | 0.99  |
|                 | 소 계  | 226,551 | 6.10  |

주 1) 운용규모 : 월말 장부가

2) 수 익 률 : 시간가중수익률

**이벤트는 월간 <사학연금>  
웹진에서  
더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웹진에서만 즐기는 이벤트!**

- ① 알쏭달쏭 빈칸 퀴즈에 참여해주세요.
- ② 월간 <사학연금>의 칼럼을 읽고 감상평을 보내주세요.

**참여방법:** 웹진 접속 후 메인 하단 EVENT 코너 클릭!

**참여기간:** 2023년 6월 9일(금)까지



**월간 <사학연금>은 독자들의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6월 9일 마감)

| 코너명      | 코너 소개  | 응모 방법   | 독자 선물          |
|----------|--|---|----------------|
| 만남 (인터뷰) | <p>월별 테마에 맞는 사학가족을 찾습니다.<br/><b>7월호 테마-아리스토텔레스</b><br/>7월에는 우리나라 헌법을 공포한 제헌절이 있는 달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헌법은 꼭 필요한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2,300년 전에 그리스의 아리스토텔레스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처럼 법과 평등에 관심이 있는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p> |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사진 인화 및 탁상용 액자 |
| 짓다       | <p>사학가족이 직접 쓴 시 또는 수필을 소개합니다.<br/>*내용과 주제는 자유</p>  | 한글 파일 형태로 원고지 10매 이내 (10포인트 기준 A4 1장)로 작성하여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문화상품권 (모바일)    |
| 인생 책     | <p>추천 도서를 소개합니다.<br/>해당 도서를 읽으면 좋을 만한 사학가족을 추천해주세요. 해당 도서를 보내드립니다.</p>   | 추천 인물과 이유를 연락처와 함께 웹진 또는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 도서             |
| 웹진 이벤트   | <p>1. 빈칸 채우기<br/>2. 독자의견</p>   | 웹진에서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스타벅스 커피 기프트콘   |

**이벤트  
참여 방법**

🌐 **이메일** [magazine@tp.or.kr](mailto:magazine@tp.or.kr)

\*독자 선물 제공에 필요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를 꼭 적어주세요.

\*선물 발송일: 해당 월(기교 글이 게재된 달) <사학연금> 발행 후 15일 이내로 발송됩니다.

**응모기간**  
2023년  
6월 9일(금)



# 사학연금 제휴 서비스 안내(상조/의료)



사학연금 제휴서비스 중 상조/장례·의료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해 소개한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제휴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필히 로그인 후 이용 가능]**

| 구분    | 제휴업체            | 제휴혜택   | 문의           | 지역 |
|-------|-----------------|--|--------------|----|
| 상조(2) | A+라이프           | 사학연금 패키지상품 특설(180만 원/270만 원)<br>사전장례 무료컨설팅<br>*식대 및 장례식장 이용료 별도            | 1688-5390    | 전국 |
|       | 에다함             | 에다함쇼 396, 에다함쇼 530 상품 할인<br>*제주도를 제외한 연륙교가 놓여있는 지역에 한함                     | 1566-6644    | 전국 |
| 장례(5) | 동아대학교의료원 장례식장   | 장례식장 시설, 장의용품 10~15% 할인<br>매점 및 식당 5% 할인                                   | 051-256-7070 | 부산 |
|       | 영남대학교병원 장례식장    | 시설사용료(빈소, 안치료, 영결식장) 10% 할인  | 053-620-4647 | 대구 |
|       | 장례식장평화원         | 빈소사용료 정가 대비 80% 할인, 식대 할인  | 042-531-4444 | 대전 |
|       | 경희의료원 장례식장      | 장례식장 시설 사용료(빈소, 안치실) 30% 할인  | 02-958-9721  | 서울 |
|       | 여의도성모 장례식장      | 시설이용요금(안치료, 빈소료, 입관비) 5% 할인  | 02-3779-1526 | 서울 |
| 의료(9) | 진주고려병원          | 비급여항목 20% 할인(재료대 제외)   | 055-751-2500 | 진주 |
|       | 경희의료원           | MRI, 초음파 등 비급여 일부 할인<br>종합건강검진 기본검진 20%, 정밀검진 10% 할인<br>치과종합검진 기본검진 20% 할인 | 02-958-2997  | 서울 |
|       | 서울베스트 의료의원      | 공단검진S5, G25, G40, G50 프로그램 선택  | 02-2135-1357 | 서울 |
|       | 한국의료재단FC 종합검진센터 | 건강검진 우대수가 적용<br>모바일 개인의료정보(HeSeL) 어플리케이션 지원<br>가족동일수가 적용                   | 1544-2992    | 서울 |
|       | 목포중앙병원          | 건강검진 10% 할인  | 061-280-3000 | 목포 |
|       | 원광대 광주한방병원      | 비급여진료비 10% 할인(약재 포함)   | 062-670-6817 | 광주 |
|       | 원광대병원           | 비급여진료, 건강검진, 스케일링 등 10~30% 할인  | 063-859-2053 | 익산 |
|       | 엔케이세종병원         | 비급여 항목 20% 할인(수술 재료비 제외)<br>제휴사 종합검진 프로그램 제공                               | 044-850-7700 | 세종 |
|       | 세이프닥 (의료복지물)    | 복지물 형태의 의료시설 종합 예약사이트<br>전국 300여 개 병원의 의료비 할인 혜택                           | 02-2088-8677 | 전국 |

※ 현장 방문 시 회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자료(연금법적용확인서, 연금수급증, 연금증서, 사학연금 압회원증, 사학연금 제휴 신용카드 등) 지참 필요

## 사학연금(TEACHERS' PENSION) QR코드 안내



웹진



유튜브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알림톡

알림톡을 친구 추가하시면  
다양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소식을 빠르게 접할 수 있습니다.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연금dream 콜센터 전국 어디서나 1588-4110

### 본사(나주)

(58326) 전라남도 나주시  
문화로 245 (빛가람동)

☎ 061) 338-0000

### 서울센터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7층  
(여의도동, 전경련회관)

☎ 02) 769-4403~4, 4408

### 대전센터

(35209)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사학연금회관  
14층 (둔산동)

☎ 042) 538-2371~2375

### 부산센터

(47358)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범일로 181  
사학연금회관, 7층 (범천동)

☎ 051) 637-6013, 6015~6017

서울·대전·부산센터에서는 근로자 휴게시간 보장을 통한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점심시간 휴무제(12:00 ~ 13:00)를 운영하고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